

[문명옥의 식물이야기][35]한라산오갈피로 불릴 뻔한 지리산오갈피

입력 : 2011. 10.01. 00:00:00



▲한라산에 자라는 지리산오갈피나무

약용식물로 유명한 지리산오갈피나무 한라산에서 채집된 관찰표본이 더 많아

오갈피나무속 식물은 동아시아에 주로 분포하는 식물로 전 세계에는 약 35종류가, 한국엔 5종류가 자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. 이 중 제주에는 섬오갈피나무와 지리산오갈피나무가 분포한다. 특히 지리산오갈피나무는 약용의 자원식물, 한국 특산식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식물이기도 하다. 그런데 지리산오갈피나무가 기록된 역사에는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다. 이름이 '한라산오갈피나무'가 될 수도 있었다는 점이다. 과연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을까?

지리산오갈피나무는 1924년 일본인 식물학자인 나카이 박사에 의해 아칸토파낙스 지리산엔시스(*Acanthopanax chiisanensis* Nakai)로 학명이 붙여지며 세상에 처음 알려지게 되었다. 학명에 사용된 '지리산엔시스'는 '지리산에 분포한다'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. 세상에 처음 밝혀지는 식물이 학명을 취득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식물의 모습과 성질을 대표할 수 있는 한 장의 표본(정기준표본)을 정하고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. 아울러 참고했던 표본들도 모두 명시하게 된다. 지리산오갈피나무는 어땠을까?

나카이 박사는 지리산오갈피나무를 발표할 때 한 장의 '정기준표본'을 정하지는 않았다. 단지 제시한 관찰표본은 제주도 영실 1000m에서 타케트(Taquet)신부가 채집한 표본(1908. 8. 17. no. 889), 제주 영실 1000m(Taquet no. 890), 제주 1000m(Taquet no. 5660) 그리고 나카이박

사 본인이 지리산에서 1913년 7월 1일 채집한 표본(no. 369)을 제시하고 있다. 사실 제주 한라산에서 먼저 채집됐고 채집된 표본이 더 많은 셈이다. 그런데 왜 '지리산엔시스(chiisanensis)'라고 이름을 지었을까? 필자의 소견으로는 아마 나카이 박사가 직접 채집하며 확인한 지역이 더 각인됐을 것으로 생각된다. 만약 나카이박사가 한라산에서 먼저 채집하였다면 '한라산엔시스(hallasanensis)'로 명명되었을지도 모를 일이다.

지리산오갈피나무는 한라산의 일부지역에서 위협에 노출되어 단 몇 그루만이 자라고 있다. 오갈피나무속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김철환 박사는 나카이가 신종으로 발표할 때 사용한 표본이 채집된 지역을 특정하며 필자에게 말했다. "과거 백여 년 전에 기록된 식물의 기준 표본 채집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종이 얼마나 될까? 현재가 사라지면 역사도 사라지게 된다. 이곳이야말로 식물애호가들의 순례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?"라고.



<이학박사·제주대 기초과학연구소>

<저자권자 © 한라일보 (<http://www.ihalla.com>)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>